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양여자대학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한양여자대학 섬유패션계열, 부교수

## 청소년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 태도와의 관계

이명희\* · 홍선옥\*\*

### 목 차

- I. 서론
- II. 문헌연구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결과 및 논의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청소년의 문제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래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기사에는 청소년의 무절제 하며 무모한 행동 등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의복과 외모로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는데, 특히 비행청소년은 그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을 의복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옷차림을 통해 그들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이 비행행동을 초래하게 하며, 그들의 비행행동과 개인환경은 비행청소년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김연수, 1985; 허정아, 1997)에서 문제청소년은 정상집단에 비해 의복의 주의집중성, 심미성, 과시성 등을 중요시하였고, 특히 신발이나 헤어스타일에서 규범에 이탈된 외모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단은 자신들만의 특유한 옷차림으로서 타인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을 하거나 특이한 옷차림을 하면서 보통상태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므로 의복이 비행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기는 비행청소년의 의복태도는 일반청소년의 의복태도와 어떻게 다른가, 비행청소년이 추구하는 의복태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변인들이 관련되어서 비행청소년들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관심에서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비행유형 및 비행정도와 인구통계적 변인이 청소년의 의복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비행유형 및 비행정도를 밝히고,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학업성적,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다.

## II. 문헌연구

### 1. 청소년 비행과 의복

비행이란 넓은 의미에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으로 국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비행이 반사회적인 개념이고, 법률적으로도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이렇게 볼 때 청소년 비행은 강간, 절도, 폭력 등 범죄행위 외에도 무단가출, 퇴학, 흡연, 본드흡입, 자살 등을 두루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sup>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개념을 법으로 금지된 범죄는 물론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규정되는 지위비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청소년 비행을 정의하여 청소년의 이탈행위의 총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룹이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멤버(member)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룹의 행동에 따르려고 한다. 불량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상황에 귀착된다는 것이다.<sup>4)</sup> 사회는 청소년을 지도하여 행위의 표준에 따라가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을 무시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비행청소년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심리적 특성이 있다. 의복관련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의복에 대한 커다란 흥미와 욕구는 비행(delinquency)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소년 범죄단은 자신들만의 특유한 자켓과 스웨터, 장식을 소유하며 자신이 집단의 일부로서 집단의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타인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을 불어넣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통상태에서는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으며<sup>5)</sup>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성향과의 관계에서 문제집단의 의복행동의 특징은 정상집단과 비교하여 심리적 의존성, 주의집중성, 심미성 측면을 중시하였다.<sup>6)</sup>

1) 함종한 (1981). 청소년. 서울 : 삼간사.

2) 안제정 (1990).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 변화. 한국청소년연구원.

3) 김준호(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형사정책연구원.

4) 장병림 (1982). 청년심리학. 서울 : 법문사

5) Ryan, M. S. (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6) 김연수 (1985).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성향과의 관계 : 서울·경기도 지역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7) 허정아 (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8) 이명희, 이은실 (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2, 1~23.
- 9) Evans, E. (1964). Motivation Underly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0), 742.
- 10)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4.
- 11) 이부희 (1995). 남녀중고등학생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12) 변기혜 (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13) 강혜원 (1974). 전계서 349~374.
- 14) 박혜선 (1990).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 : 의복동조동기의 유형, 관련변인 및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15) Berg, J. H., Stephan, W. G. and Dodson, M. (1981). Attributional Modesty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5), 712.
- 16) Flugel, J. C. (1971).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 17) 전근희 (1985). 고교생의 복식행동과 생활양식유행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18) 이춘자 (1988). 사회계층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28
- 19) 전근희 (1985). 전계서 349~374.
- 20) 강혜원 (1974). 전계서 349~374.

또한 청소년의 일탈정도가 높은 집단은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과시성이 가장 높았고, 심미성, 의복관심, 유행, 동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숙성이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sup>7)</sup>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일탈된 행동은 일반학생들과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그들만이 갖는 정체성 표현으로써 일탈된 의복의 표현방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2.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에 대한 태도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의해 유추되므로 의복태도는 의복행동과 동질적인 변인이라고 하였다.<sup>8)</sup>

본연구에서는 동조성, 개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 의복규제 거부 등의 6개 변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동조성 관련연구에서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은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학생은 타인과 다르게 옷을 입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up>9)</sup> 즉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동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sup>10)</sup>,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해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반대 견해도 밝혔다.<sup>11)</sup> 사회계층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여고생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승인 혹은 소속감을 얻기 위한 의복행동이 높다고 하였으나<sup>12)</sup>, 이부희(1995)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동조를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수준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월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많이 동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개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개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밝혔고<sup>13)</sup> 박혜선(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반동조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sup>14)</sup>

정숙성 관련연구의 결과에서 성별로 볼 때, 정숙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중요시하는데 그것은 여성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sup>15)</sup>, 여성의 性的 본능은 신체 전체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sup>16)</sup> 특히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복식행동의 성별 차이 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고 하였다<sup>17)</sup>. 사회계층별로 볼 때, 여학생은 사회계층에 따라 정숙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up>18)</sup>,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가정의 소득이 적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며, 저소득층에서는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복식보다는 예의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복식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19)</sup>

유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행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보다 여고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유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정숙성에는 관심이 낮고 동조성에는 어느정도의 관심을 보였다.<sup>20)21)22)</sup> 사회계층별로 볼 때, 소득이 증가할수록 유행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sup>23)24)25)</sup> 또한 학업성적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상' 인 학생이 '중' 이나 '하' 인 학생보다 의복디자인 및 유

21) 김영인, 강혜원 (1981).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를학회지, 5(2), 13~28.  
 22) 김정희 (1989). 서울시 남·여고교생의 교복·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격할 태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3) 김영인 (1980).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4) 김정희 (1989). 전개서.  
 25) 유관순, 신상옥 (1984). 성격특성과 의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 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를학회지, 10(1), 27~35.  
 26) 최정희 (1991). 여고생의 의복흥미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27) 정미실 (1990).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8) 박광희 (1983).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9) 유덕화 (199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과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30) 김정호 (1978). 사회계층과의복행태:서울시내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를학회지, 2(2), 45~52.  
 31) Horn, M. J. and Gurel, I. M. (1981). The Second Skin: An I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32) Ryan, M. S. (1966). 전개서  
 33) Mead, G. H. (1962).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 박미애 (199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35) 김양진 (1991).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에 관한 흥미가 낮게 나타났다.<sup>26)</sup> 이는 김병미(1984)의 연구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디자인 및 유행에 대한 흥미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성별로 볼 때,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의복중요성과 규범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의복중요성은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sup>27)</sup> 여고생의 의복행동변인 중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에는 의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평가를 높이 하는 여학생일수록 의복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sup>28)</sup> 또한 여자 중고등학생은 세가지 변인 중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정숙성, 동조성 순으로 나타났다.<sup>29)</sup> 사회계층과 의복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Vene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sup>30)</sup>

의복규제는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의복규제는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된다. 의복은 부모와 10대의 가치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의 근원이라고 하였다.<sup>31)</sup> King은 부모의 의복기준이 오래집단에 동조될 수 있는 의복과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의 욕구불만이 발생함을 지적하였고,<sup>32)</sup> 청소년기의 소녀와 어머니 사이에 의복선택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sup>33)</sup> 성별로 볼 때, 중고생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여중생이 더 규범적이라고 하였으며,<sup>34)</sup> 여고생은 부모의 의복규제요인에서 현재 유행하는 의복이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에 대한 부모의 의복규제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sup>35)</sup>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선정된 표본집단은 서울시의 중고등학생 인구비율에 따라 추출되었으며, 서울시의 중고등학생 인구분포는 97년의 『서울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하였다.

모집단의 비율에 따라 지역, 성별, 계열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선정방법은 할당표집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를 남녀중학교, 일반계열 남녀고등학교, 실업계열 남녀고등학교로 층화한 다음, 각 층의 모집단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수를 선정하였으며 사회계층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강남, 강북 지역을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교분포

학교 구분	성별	지역	표본 학생수	비율 (%)	모집단 기대치
중학교	남학생	강남지역	224	21.3	208.4
		강북지역			
	여학생	강남지역	194	18.5	187.4
		강북지역			
고등학교	일반 계열	남학생	236	22.5	238.5
		강남지역			
	여학생	강남지역	171	16.5	186.4
		강북지역			
	실업 계열	남학생	95	9.0	102.2
		강남지역			
여학생	130	12.4	127.2	CI여상	
합 계			1050	100.0	1050.0

이와 같은 중고등학교별 남녀학생의 표본추출비율이 모집단의 비율과 통계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Chi-square 값은 3.26으로 나타나 귀무가설( $H_0$ :모집단의 비율과 표본의 비율은 같다)을 기각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다. 따라서 《표 1》의 조사대상자 분포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모집단의 분포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2.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1) 의복태도와 의복규제에 대한 태도 측정 (2) 비행정도에 관한 측정 (3) 인구통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을 포함하였다.

### (1) 의복태도변인의 측정

의복태도 관련변인의 척도는 선행연구(강혜원, 1974; 박혜선, 1990; 정미실, 1990; 박광희, 1983; 권영남, 1984; 이명희, 1983; 김정희, 1989)를 기초로 하였으며, 그 하위변인으로 동조성, 개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을 추출하였다.

동조성은 8문항, 개성은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은 각각 5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태도에서 사용한 31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처음에 설정한 대로 6개 요인을 추출하여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하였다. 그 결

과 6개 요인 가운데 제6요인에서 문항과 요인의 내용이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항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제 6요인에서 3개 문항을 제외하고 5개 요인으로 추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요인 1은 유행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8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5.26이고, 전체변량은 18.8%이었다. 요인 2는 개성 관련 내용으로 처음에 설정한 반동조 문항과 의복독립 문항 가운데 의복독립 4문항 중 3문항을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반동조에 관련된 내용만이 포함되었다.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2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2.57, 전체변량은 9.2%이었다. 요인 3은 정숙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0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2.11, 전체 변량은 7.5%이었다. 요인 4는 동조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일시적 동조 4문항, 규범적 동조 2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0.35 이상이고, 고유치는 1.53, 전체변량은 5.5%이었다. 요인 5는 의복의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34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07, 전체 변량은 3.8%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복태도 변인은 유행성, 개성, 정숙성, 동조성, 중요성 등 5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요인분석결과에서 나온 5개의 요인별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요인 내적일치도는 유행성( $\alpha=0.776$ ), 개성( $\alpha=0.708$ ), 정숙성( $\alpha=0.611$ ), 동조성( $\alpha=0.648$ ), 중요성( $\alpha=0.546$ )이었다

## (2) 의복규제에 대한 태도의 측정

의복규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변인으로는 의복규제거부를 측정하였다. 학생의 의복규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유덕화(1991), 박미애(1991)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복장규정과 학생규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여 총 31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규제거부에 관한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의복규제거부에 대한 Cronbach's  $\alpha$  분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신뢰도는 0.714였다.

《표 2》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요인 1 : 유행성	요인부하량
옷을 살 때 나는 우선 유행을 고려한다	0.721
나에게는 새로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0.666
주위 친구들의 옷입는 기준에 맞추어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658
나는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	-0.627
나는 새로 유행하는 옷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0.478
전체변량:18.8% 누적변량:18.8% 고유치:5.256	
요인 2 : 개성	요인부하량
많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과는 다른 특이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0.729
내가 속한 집단에서 옷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	0.668
나는 될 수 있는 한 매우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사려고 한다.	0.651
나는 새롭고 독특한 스타일의 의복을 주로 즐겨 입는다.	0.603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한다.	0.524
전체변량:9.2% 누적변량:28.0% 고유치:2.573	
요인 3 : 정숙성	요인부하량
나는 언제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한다.	0.637
외출할 때 지나치게 신체를 드러내거나 파진 옷은 절대로 입지 않는다.	0.560
너무 꼭끼고 노출된 옷을 입는 사람을 보면 민망하다.	0.551
정숙한 느낌이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0.540
나는 선생님이나 윗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옷차림에 특히 신경쓴다.	0.533
옷을 입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0.497
전체변량:7.5% 누적변량:35.5% 고유치:2.112	
요인 4 : 동조성	요인부하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옷과 유사한 옷을 구입한다.	0.683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의 옷차림을 모방하거나 응용하는 때가 있다.	0.581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고 싶다.	0.563
나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0.403
TV나 잡지 등을 볼 때 가수나 배우, 모델 등의 옷차림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	0.389
만약 어떤 모임에서 내가 남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0.353
전체변량:5.5% 누적변량:41.0% 고유치:1.527	
요인 5 : 중요성	요인부하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옷차림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0.675
별로 잘 생기지 못한 사람도 옷으로써 훨씬 낫게 보일 수 있다.	0.624
옷은 첫인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0.497
나는 옷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R)	-0.472
옷을 입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복장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R)	-0.451
나는 의복은 걸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R)	-0.341
전체변량:3.8% 누적변량:44.8% 고유치:1.069	

R : 거꾸로 채점되는 문항

### (3) 청소년 비행의 측정

측정방법은 각 비행항목에 대하여 경험유무와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동안 해본적이 있는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혀 없었다'를 1점, '한두번 있었다'를 2점, '여러번 있었다'를 3점, '자주 있었다'를 4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척도에서 사용한 25개 문항을 비행변인 유형별로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 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 가운데 제 4요인, 제 5요인의 내용이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았으며 1개 문항(학원비 다른곳에 씀)은 문항의 내용과 요인이 일치되지 않아 1개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4개 요인으로 추출하여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반항비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38 이상이고 모두 7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7.99, 전체변량은 33.3%이었다.

요인 2는 기물파손 및 폭력비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8 이상이고, 모두 8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2.20, 전체변량은 9.2%이었다.

요인 3은 지위비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8이상이고 모두 6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34, 전체변량은 5.6%이었다.

요인 4는 재산비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46 이상이고 모두 3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31, 전체변량은 5.5%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비행의 요인분류는 반항비행, 기물파손 및 폭력비행, 지위비행, 재산비행 등 4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김준호(1995)의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비행군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기물 파손 행위, 가출 및 무단결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요인분석결과에서 나온 4개의 요인별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반항비행( $\alpha=0.792$ ), 기물파손 및 폭력비행( $\alpha=0.814$ ), 지위비행( $\alpha=0.814$ ), 재산비행( $\alpha=0.659$ )이었다.



〈표 3〉 비행의 요인분석

요인 1 :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무단결석	0.747
가출	0.692
반항비행	디스코장 출입 0.634
	부모 허락없이 외박 0.598
	고의로 수업시간 빠짐 0.564
	본드 가스 흡입 0.428
	남의 집이나 건물에 무단 침입 0.388
전체변량: 33.3% 누적변량: 33.3% 고유치: 7.989	
요인 2 :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기물파손 및	공중전화 또는 전화박스 파손 0.671
	남의 차에 흡집 내기 0.670
	흥기 소지 0.647
폭력비행	학교기물 파손 0.634
	다른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함 0.592
	다른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음 0.552
	폭력이나 위협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0.526
	패싸움 0.480
전체변량: 9.2% 누적변량: 42.5% 고유치: 2.204	
요인 3 :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지위비행	노래방 출입 0.712
	술집 출입 0.670
	당구장 출입 0.662
	부모의 허락없이 밤 늦게 집에 들어감 0.615
	담배 피우기 0.595
	술 취해서 돌아 다님 0.581
전체변량: 5.6% 누적변량: 48.0% 고유치: 1.337	
요인 4 :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재산비행	일 만원이상의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침 0.827
	일 만원이하의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침 0.806
	등록금 등 학교에 낼 돈을 다른곳에 씬 0.462
전체변량: 5.5% 누적변량: 53.5% 고유치: 1.314	

## (4) 인구통계적 변인의 측정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학업성적, 사회계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학업성적 측정은 반에서의 등수를 1~5등, 6~10등, 11~15등, 16~20등, 21~25등, 26~30등, 31~35등, 36~40등, 41등 초과로 분류하여 9등급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10등

까지 24.5%, 11~20등 까지 25.6%, 21~30등 까지 23%, 31~40등 까지 17.4%, 41등 이하는 9.4%로 나타났는데, 41등 이하의 분포가 적은 이유는 중학교나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급의 인원이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해당자가 적었다.

사회계층은 주관적 측정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측정방법은 상류층의 상, 중, 하와 중류층의 상, 중, 하와 하류층의 상, 중, 하의 9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의 상류층은 6.9%, 중류층은 86%, 하류층은 8.1%로 나타났는데, 중류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계층 측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측정한테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 각 변인의 점수분포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술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 비행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에 의한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청소년의 비행유형 및 비행정도에 따른 집단의 세분화

비행정도에 따른 집단 분류기준은 청소년의 비행유형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모든 비행유형을 같은 비중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문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기준에 차이를 두었다.

모범집단은 모든 문항에서 무경험자와 사소한 비행으로 성인들의 경우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정의되는 지위비행(김준호, 1995) 가운데, '노래방 출입'은 3점까지의 경험응답자(전체의 약 59.9%), '당구장 출입'에서 2점까지의 경험응답자(전체의 약 64.3%), '부모허락없이 늦은 귀가'에서 2점까지의 경험자(전체 약 78%)들은 모범집단으로 칭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모범집단의 비율은 19.7%(207명)였다.

중간집단은 중비행 경험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경험한 응답자, 그중 지위비행에서는 '노래방 출입'에서 4점에 응답한 응답자(전체의 40.1%)와 '당구장 출입'에서 3점 이상인 경험응답자(전체의 35.7%)와 '부모허락없이 늦은 귀가'에서 3점 이상인 경험응답자(전체의 22%)를 중간집단으로 칭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중간집단의 비율은 63.5%(667명)였다.

비행집단은 비행성이 높고 형사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을 중비행(김준호, 1994)이라 했을 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중비행에 속하는 항목, 즉 '본드나 가스흡입', '흉기 소지', '폭력이나 위협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가출', '패싸움' 등 5

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경험한 집단을 비행집단으로 칭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중 비행집단의 비율은 16.8%(176명)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비행정도에 따라 의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앞서 비행정도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2.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학생들의 비행정도에 따라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으로 구분하여 3개 집단간의 의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을 보면,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는 모두 비행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비행정도 의복태도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	전체	F
동조성	2.639(B)	2.898(A)	2.978(A)	2.861	16.837***
개성	2.680(C)	2.900(B)	3.127(A)	2.895	23.228***
정숙성	3.391(A)	3.179(B)	2.948(C)	3.182	26.214***
유행성	2.831(C)	3.171(B)	3.358(A)	3.135	27.725***
중요성	3.597(B)	3.795(A)	3.826(A)	3.761	13.114***
의복규제거부	2.399(C)	2.957(B)	3.242(A)	2.895	65.915***

\*\*\*P<0.001 \*\*P<0.01      문자 A,B,C 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동조성은 중간집단과 비행집단이 모범집단보다 높았으며, 중간집단과 비행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의복태도에 있어서 동조성은 모범집단보다 비행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범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반사회적이며 부적응 행동을 하며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비행학생들은 그들끼리 비슷하게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준거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일치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중생이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한다는 이은미(1985)의 연구결과와 심리적 안정성이 낮을수록 동조성이 높았다는 신옥순(1978)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느정도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개성은 비행정도에 따른 차이가 3집단 간에 나타났다. 개성은 비행집단이 가장 높

고, 중간집단, 모범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집단보다 비행집단은 남들이 착용하는 의복과는 다른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행하는 학생들은 일탈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출구를 찾고자 하며, 사회구조로부터 소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표준적인 의복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정숙성은 비행정도에 따라 3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모범집단이 가장 높고, 중간집단, 비행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집단은 사회적 규범에 맞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예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복태도를 중요시하였으며, 비행집단은 정숙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다는 박광희(1983)의 연구결과와 김연수(1985)의 연구결과에서 여고생의 정상집단은 문제집단보다 정숙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복장규정을 잘 지키는 학생일수록 정숙성이 높았다고 한 유덕화(1991)의 연구결과가 어느정도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유행성은 비행정도에 따라 3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비행집단이 가장 높고, 중간집단, 모범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집단은 모범집단에 비해 의복의 유행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비행하는 청소년 특징이 하나의 공통적인 결합력이 강하여 모방하는 욕구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개인적 차별화의 욕구로서 그들 나름대로 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행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성은 중간집단과 비행집단이 모범집단보다 높았으며, 중간집단과 비행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범집단보다 비행집단이 의복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승인을 확신하는 학생일수록 의복에 대해서도 덜 의존적이라고 한 Ryan(1966)의 견해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의복의 중요한 속성이 자기확신감과 안정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비행하는 학생들은 의복을 더욱 중요시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복규제거부는 3집단간에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비행집단이 가장 높았고, 중간집단, 모범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은 의복규제를 더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집단이 우수집단보다 의복규제를 더욱 반대하고 있다고 한 Vogel(196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 3. 청소년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청소년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비행정도가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이원변량분석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변인인 성별, 학업성적, 사회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표 7>과 <그림 1>~<그림 3>과 같이 정리되었다.

## (1) 성별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비행정도에 따른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555명(52.8%)으로서, 모범집단에 95명, 중간집단에 346명, 비행집단에 1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학생은 495명(47.2%)으로서, 모범집단에 112명, 중간집단에 321명, 비행집단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를 보면, 모든 의복변인은 비행정도의 주효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성별의 주효과에서는 정숙성을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비행정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의복규제거부에서만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원변량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는 비행정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은 비행정도가 심할수록 동조성, 개성, 유행성, 중요성, 의복규제거부가 높았으며, 정숙성은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조성, 개성, 유행성, 중요성, 의복규제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숙성은 남녀학생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5》 성별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비행정도 성별 의복태도		모범 집단	중간 집단	비행 집단	전체	변량원	F
동조성	남	2.48	2.73	2.88	2.72	성별(A)	72.451***
	여	2.77	3.08	3.17	3.02	비행정도(B)	22.913***
	전체	2.64	2.90	2.98	2.86	상호작용(A×B)	0.204
개성	남	2.57	2.87	3.08	2.86	성별(A)	6.016***
	여	2.77	2.93	3.22	2.93	비행정도(B)	24.967***
	전체	2.68	2.90	3.13	2.89	상호작용(A×B)	1.249
정숙성	남	3.34	3.21	3.00	3.19	성별(A)	1.362
	여	3.44	3.15	2.84	3.18	비행정도(B)	26.909***
	전체	3.39	3.18	2.95	3.18	상호작용(A×B)	2.256
유행성	남	2.70	3.09	3.23	3.05	성별(A)	22.484***
	여	2.94	3.26	3.56	3.23	비행정도(B)	31.775***
	전체	2.83	3.17	3.36	3.14	상호작용(A×B)	1.296
중요성	남	3.46	3.67	3.75	3.65	성별(A)	64.634***
	여	3.71	3.93	3.97	3.89	비행정도(B)	17.649***
	전체	3.60	3.80	3.83	3.76	상호작용(A×B)	0.083
의복규제 거부	남	2.23	2.77	3.00	2.73	성별(A)	86.759***
	여	2.55	3.16	3.69	3.08	비행정도(B)	32.589***
	전체	2.40	2.96	3.24	2.89	상호작용(A×B)	3.353*

\*\*\*P&lt;0.001 \*\*P&lt;0.01 \*P&lt;0.05

동조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부희(199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조성을 중요시 한다는 Evans (1964), Hambleton, Roach와 Ehle(1972), Williams와 Eicher(1966), 강혜원(1974), 김병미(1975), 임춘봉(197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복에 관심이 더 많고,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승인을 얻는데 있어 더 확실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복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개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독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이 다양하므로 개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는 남자보다 개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강혜원(1974), 박혜선(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정숙성은 남녀학생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 평균치를 볼 때 남녀 모두가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숙성이 높다고 한 이명희(1983), 전근희(1985), 김정희(198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의 연구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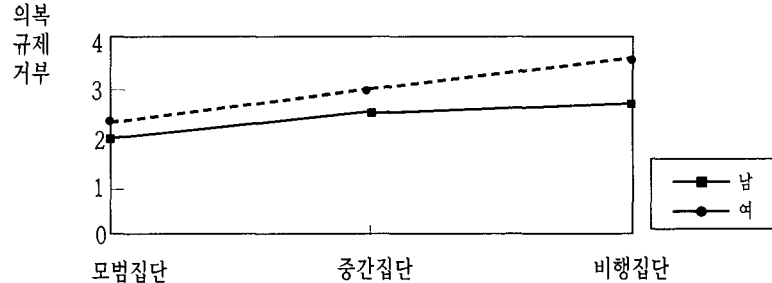
유행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에게는 유행이 특별한 관심 있는 문제로, 의복디자인에서 남성복보다 다양하고, 극적이며, 최신유행에 대한 흥미가 남자보다 대체로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강혜원(1974), 김영인, 강혜원(1981), 김정희(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중요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를 더 의식하고, 의복의 미적인 측면이나 관심을 두는 정도가 더 강하므로 의복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나타난 정미실(1990), 김병미(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여학생의 의복행동변인 가운데 의복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광희(1983), 이희남(1985), 유덕화(1991)의 선행연구가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의복규제거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개성적이며, 독특성이 높은데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록 덜 규범적이라고 한 박미애(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복이 다양하여 규제대상의 품목도 다양하다. 즉 머리모양, 머리핀, 악세서리, 다양한 종류의 신발 등으로 규제에 해당되는 범위가 넓으므로, 거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의 성별과 비행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면 의복규제거부에서만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정도가 의복규제에 미치는 효과가 남녀학생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규제거부 정도가 심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비행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 비행집단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복규제거부가 더 높았다. 즉 비행

정도에 따른 의복규제거부는 남녀학생간에 다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규제거부에 있어서 남학생은 모범집단과 중간집단의 차이가 크데 비하여, 여학생은 중간집단과 비행집단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의복규제거부에 대한 성별과 비행정도에 의한 상호작용

## (2) 학업성적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학업성적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과 비행정도에 따른 집단의 분포를 보면, 학업성적 상위는 403명(38.3%)으로서 모범집단이 103명, 중간집단이 269명, 비행집단이 31명이었고, 학업성적 중위는 365명(34.8%)으로서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 별로 각각 69명, 247명, 49명이었고, 학업성적 하위는 282명(26.9%)으로서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 별로 각각 35명, 151명, 96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의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는 모두 비행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청소년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 가운데 정숙성, 유행성, 의복규제거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정숙성은 낮았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 학업성적이 부진하면 주변에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반항하여 이탈행위를 하며, 불량행위를 하기 쉽다. 따라서 의복태도에서도 사회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편이므로 대체적으로 정숙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한편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유행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상위인 여학생이 낮은 여학생보다 유행에 관한 흥미가 낮다고 한 최정희(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으나, 김병미(1984)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의복규제거부는 낮았다. 학업성적이 우수 할수록 의복규제에 더 순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남녀 고등학생에서 우수집단이 비행집단보다 의복규제를 더욱 따르고 있다고 한 Vogel(1966)의 연구결과가 지지됨을 볼 수 있다.

학업성적과 비행정도가 청소년의 의복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학업성적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비행정도		모범 집단	중간 집단	비행 집단	전체	변량원	F
학업성적	의복태도						
동조성	상	2.61	2.84	3.02	2.80	학업성적(A) 비행정도(B) 상호작용(A×B)	1.808 14.415*** 2.209
	중	2.56	2.95	2.85	2.86		
	하	2.88	2.91	3.03	2.95		
	전체	2.64	2.90	2.98	2.86		
개성	상	2.65	2.92	3.12	2.86	학업성적(A) 비행정도(B) 상호작용(A×B)	0.476 20.624*** 1.021
	중	2.71	2.89	2.98	2.87		
	하	2.73	2.89	3.21	2.98		
	전체	2.68	2.90	3.13	2.89		
정숙성	상	3.47	3.30	3.11	3.33	학업성적(A) 비행정도(B) 상호작용(A×B)	12.522*** 18.130*** 0.057
	중	3.32	3.11	2.92	3.12		
	하	3.30	3.08	2.91	3.05		
	전체	3.39	3.18	2.95	3.18		
유행성	상	2.79	3.08	3.21	3.01	학업성적(A) 비행정도(B) 상호작용(A×B)	6.612*** 21.248*** 0.392
	중	2.79	3.21	3.29	3.14		
	하	3.02	3.27	3.44	3.30		
	전체	2.83	3.17	3.36	3.14		
중요성	상	3.63	3.79	3.76	3.75	학업성적(A) 비행정도(B) 상호작용(A×B)	0.301 12.380*** 0.929
	중	3.58	3.80	3.74	3.75		
	하	3.55	3.80	3.89	3.80		
	전체	3.60	3.80	3.83	3.76		
의복규제 거부	상	2.26	2.76	2.99	2.65	학업성적(A) 비행정도(B) 상호작용(A×B)	25.406*** 50.710*** 1.263
	중	2.50	3.07	3.04	2.96		
	하	2.61	3.13	3.43	3.17		
	전체	2.40	2.96	3.24	2.89		

\*\*\*P<0.001

(3)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의 차이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의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따른 집단의 분포를 보면, 사회계층의 상류층은 293명(27.9%)으로서 모범집단이 60명, 중간집단이 106명, 비행집단이 41명이었고, 중류층은 521명(49.6%)으로서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 별로 각각 182명, 335명, 150명이었으며, 하류층은 236명(22.5%)으로서 모범집단, 중간집단, 비행집단 별로 각각 51명, 80명, 4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7〉에 의하면 모든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거부는 비행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는 개성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동조성, 정숙성, 유행성,



중요성, 의복규제거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성의 경우, 사회계층이 전반적으로 상류그룹에 속한 학생이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의복이나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냄으로써 의복을 자기표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계층과 비행정도는 의복태도 중 개성, 유행성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때 비행정도가 심할수록 개성을 중요시하지만, 비행정도가 개성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계층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이 상류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은 비행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개성을 어느정도 중요시하였고, 중하류층에 속한 학생들은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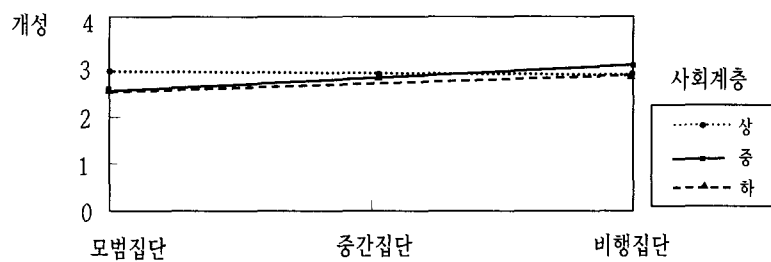
또한 〈표 7〉 〈그림 3〉에서 볼 때 유행성은 사회계층 및 비행정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이는 비행정도가 유행성에 미치는 효과가 학생들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유행성을 사회계층별로 보면 중류그룹과 하류그룹은 비행정도가 심할수록 유행성이 높는데 비하여, 사회계층이 상류그룹인 학생들은 비행집단보다 중간집단이 의복의 유행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이 상류그룹인 학생들은 중·하류그룹과는 달리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비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중간집단이 의복유행을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비행보다 지위비행 하는 학생들이 유행성에 더 높다고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경제수준이 높으며, 심하지 않은 비행, 즉 노래방 출입, 당구장 출입, 늦은 귀가, 술집 출입 등의 지위비행을 주로 하는 중간집단의 학생들은 그들 주변환경에 인해서도 의복의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하고 관심이 높으리라는 것이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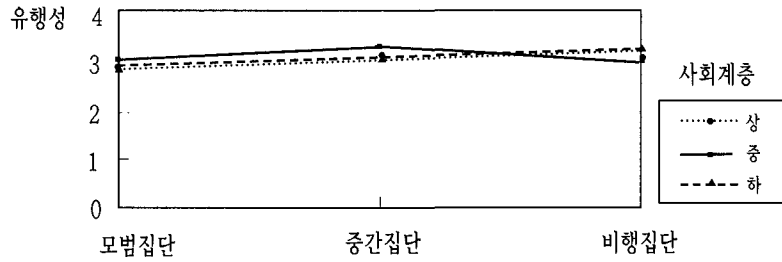
〈표 7〉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

비행정도	모범 집단	중간 집단	비행 집단	전체	변량원	F
동조성	상	2.75	2.93	2.97	2.90	학업성적(A) 0.746 비행정도(B) 16.803*** 상호작용(A×B) 0.790
	중	2.58	2.90	2.94	2.84	
	하	2.65	2.86	3.06	2.86	
	전체	2.64	2.90	2.98	2.86	
개성	상	2.95	3.01	3.04	3.01	학업성적(A) 7.638*** 비행정도(B) 24.222*** 상호작용(A×B) 3.458***
	중	2.58	2.88	3.23	2.87	
	하	2.55	2.81	3.04	2.81	
	전체	2.68	2.90	3.13	2.89	
정숙성	상	3.37	3.17	3.06	3.19	학업성적(A) 0.079 비행정도(B) 26.190*** 상호작용(A×B) 0.952
	중	3.32	3.11	2.92	3.12	
	하	3.47	3.17	2.94	3.18	
	전체	3.39	3.18	2.95	3.18	
유행성	상	2.88	3.26	3.12	3.16	학업성적(A) 0.451 비행정도(B) 28.091*** 상호작용(A×B) 3.047**
	중	2.81	3.15	3.48	3.13	
	하	3.02	3.27	3.44	3.30	
	전체	2.83	3.17	3.36	3.14	
중요성	상	3.62	3.82	3.86	3.78	학업성적(A) 0.490 비행정도(B) 13.059*** 상호작용(A×B) 0.253
	중	3.58	3.78	3.84	3.75	
	하	3.62	3.80	3.76	3.76	
	전체	3.60	3.80	3.83	3.76	
의복규제 거부	상	2.44	2.99	3.26	2.92	학업성적(A) 0.430 비행정도(B) 65.760*** 상호작용(A×B) 0.052
	중	2.38	2.95	3.26	2.88	
	하	2.38	2.93	3.19	2.88	
	전체	2.40	2.96	3.24	2.89	

\*\*\*P<0.001 \*\*P<0.01



〈그림 2〉 개성에 대한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의한 상호작용



(그림 3) 유행성에 대한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대한 상호작용

##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유형 및 비행정도를 밝히고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학업성적,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따라 집단 분류 기준에 차이를 두어 모범집단(무경험자, 지위비행 가운데 노래방출입, 당구장출입, 부모허락없이 늦은 귀가의 경험자), 중간집단(지위비행 가운데 노래방출입 자주감, 당구장출입 여러번감, 부모허락없이 늦은 귀가 여러번 하는 경험자와 중비행경험자를 제외한 경험자), 비행집단(중비행, 본드나 가스 흡입, 흥기소지, 폭력이나 위협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가출, 패싸움의 경험자)으로 재분화 하였다.

2.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① 동조성은 중간집단과 비행집단이 모범집단보다 높았다. 즉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동조성은 모범집단보다 비행집단이 더 높았다.

② 개성은 비행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간집단, 모범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집단보다 비행집단은 남들이 착용하는 의복과 다른 의복을 착용하려는 의복태도가 높았다.

③ 정숙성은 모범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간집단, 비행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집단은 사회적 규범에 맞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예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복태도를 중요시하였으며, 비행집단은 의복정숙성이 더 낮았다.

④ 유행성은 비행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간집단, 모범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집단은 모범집단에 비해 의복의 유행성이 높았다.

⑤ 중요성은 비행집단과 중간집단이 모범집단 보다 높았다. 즉 비행집단은 모범집단보다 의복을 중요시 여겼다.

⑥ 의복규제거부는 비행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간집단, 모범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범집단에 비해 비행집단은 의복규제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3. 청소년의 인구통계적 변인(성별, 학업성적,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① 성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조성, 개성, 유행성, 의복중요성을 중요시하며, 의복규제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숙성은 남녀학생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별과 비행정도에 따른 의복규제거부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비행집단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의복규제거부가 더 높았다.

② 학업성적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는 정숙성, 유행성, 의복규제거부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정숙성은 높은 반면, 유행성, 의복규제거부는 낮았다. 학업성적과 비행정도의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③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규제태도의 차이는 개성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계층이 상류층인 학생이 의복개성을 중요시하였다. 사회계층과 비행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개성 및 유행성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모범집단 학생 중에서도 사회계층이 상류층인 학생은 비행정도에 관계없이 개성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사회계층이 중·하류층인 학생들은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사회계층이 중·하류층의 비행집단은 상류층 비행집단보다 의복의 유행에 더 민감하였다.

## 참 고 문 헌

-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349~374.
- 김병미 (1975).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개론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31~45.
- 김병미 (1984). 여고생의 의상흥미에 관한 기초적연구.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22, 213~224.
- 김양진 (1991).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연수 (1985).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성향과의 관계 : 서울·경기도 지역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인, 강혜원 (1981).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13~28.
- 김정호(1978). 사회계층과 의복행태 :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45~52.
- 김준호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형사정책연구원.
- 박광희 (1983).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미애 (1991). 여자중·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혜선 (1990).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 : 의복동조동기의 유형, 관련변인 및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변기혜 (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옥순(1977).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의 심리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제정 (1990).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 변화.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관순, 신상옥(1984). 성격특성과 의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27~35
- 유덕화(1991). 여자중·고등학생들의복식행동과복장규범에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 이은실 (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2, 1~23.
- 이부희 (1995). 남녀중고등학생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미(1985).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춘자 (1988). 사회계층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남(1985) 여대생의 신체적만족도 및 신체충실지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상지대논문집, 6.
- 임춘봉(1974).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병림 (1982). 청년심리학. 서울 : 법문사
- 전근희 (1985). 고교생의 복식행동과 생활양식유형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미실 (1990).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정희 (1991). 여고생의 의복흥미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함종한 (1981). 청소년. 서울 : 상간사.
- 허정아 (1997). 청소년의 일탈성향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Berg, J. H., Stephan, W. G. and Dodson, M. (1981). Attributional Modesty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5), 712.
- Evans, E. (1964). Motivation Underlying Selection and Wear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0), 742.
- Flugel, J. C. (1971).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 Hambleton, K.B., Roach, M.E. and Ehle, K.(1972). Teenage Appearance: Comfort, Preference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4, No.2, 29~33.
- Horn, M. J.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Mead, G. H. (1962).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Press.
- Ryan, M. S. (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Delinquency and  
Clothing Attitude, clothing regulation  
attitude for Adolescent

Myoung-Hee, Lee\* · Sun-Ok, Hong\*\*

\*Dept. clothing and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textile and  
fashion, Hanyang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ied as the degree of the delinquency and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of adolescents' clothing attitude, clothing regulation attitude according to their delinquency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Delinquency was classified as revolt, breakage and violence, status and proper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delinquency, subjects were categorized as delinquent, middle and exemplary groups.

Second, the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importance were higher in delinquent and middle than exemplary group; individuality, fashion and refusal against clothing regulation were most regarded by delinquent group, and followed by and middle and exemplary groups, meanwhile, the reverse was the case for modesty.

Third, schoolgirls were more regarded the conformity, individuality, fashion and clothing importance and higher the refusal against clothing regulation than school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sexes in modesty, and schoolgirls in delinquent group were more fiercely refused the clothing regulation than schoolboys in same group. The better a student did at school, the higher the modesty was and the lower the fashion and refusal against clothing regulation were. The higher a student belonged to a social status, the more he/she regarded the individuality importantly. While exemplary student who belonged to

a high social status tended to pursue the individuality regardless his/her degree of delinquency, as for the student who belonged to middle or below social status, the higher the degree of delinquency was, the more he/she regarded the individuality. Besides, delinquent students who belonged to middle or below social status were more sensitive in fashion than those to higher social status.